

학교폭력 등 학내갈등 관계회복으로 해결

규율·처벌 교육 한계... 전남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 추진 조정 전문가 양성하고 22개 시·군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 10개 시·군에 생활인권팀 구성하고 변호사 27명 법률지원

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등 각종 갈등사건 해결을 위한 '회복 교육' 정책이 추진된다. 교내 갈등이 법적 다툼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내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의 갈등상황 해결을 위해 비난과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율과 처벌의 학생생활교육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갈등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회복적 생활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문가 41명 양성을 목표로 160시간 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 직무연수도 추진한다.

또 교사 600여명이 참여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효율적 정착 연구를 진행하는 광

역 연구회 1개와 권역(동부·중부·서부·고흥) 연구회 4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연수도 진행한다.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 하는 외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역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7개 교육지원청에서 회회·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등 갈등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남지역 내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와 5개 군(곡성·고흥·해남·무안·진도)에 학교폭력업무지원을 위한 생활인권팀을 꾸리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도 만들었다. 법률지원단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3

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4명 등 27명이 동부·서부·중부 등 3개 권역별로 배치돼 활동한다. 이들은 분쟁과 갈등문제의 법률적 해석과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회회·조정 등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지원단'도 전남 22개 시·군에 각 2-5명씩 구성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계 회복과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대응을 지도하는 등 전반적인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을 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게 되면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해질 19:31 달뜨기 17:44 달짐 04:31

5·18 영령 추모하는 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17/28	보성	가뭇그리고비	13/25
목포	가뭇그리고비	17/25	순천	흐림	16/27
여수	흐림	17/24	영광	흐림	16/27
나주	흐림	15/27	진도	가뭇그리고비	15/23
완도	가뭇그리고비	16/23	전주	흐림	16/28
구례	흐림	13/28	군산	흐림	17/26
강진	가뭇그리고비	15/25	남원	흐림	15/26
해남	가뭇그리고비	15/25	흑산도	가뭇그리고비	16/21
장성	흐림	15/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5~3.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5~2.5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09, 18:26	00:48, 13:05
여수	간조	만조
	01:45, 13:57	07:56, 20:30

◇주간 날씨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	☁	☁	☀	☀	☀	☀
17/23	16/28	17/24	14/26	14/26	14/26	15/27



아이쿠! 시원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6일 광주시 북구 문흥근린공원에서 한 중학생이 물줄기에 더위를 씻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14회 들불상 노동자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입사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사진)씨가 2019년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16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 법)을 이끌었던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4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김미숙씨는 '김용균 법'을 이끌어내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 올해 시대 정신이 청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들불상은 1970년 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13회 때는 '미투운동'의 촉발자 서지현 검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역사학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 연도 해상서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16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께 여주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에 죽은 채 걸려있는 것을 24 t급 H호(여수선적) 정치망 소유자 최모(57)씨가 발견했다.

해경은 "밍크고래를 인양해 국립수산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을 한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분명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혼획'(混獲)된 밍크고래는 길이 4.45m, 둘레 2.6m 크기, 포항 소재 수협에서 위판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광주교육청 상반기 '교육정책 제안' 공모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광주교육정책 제안' 공모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안은 ▲일반교진로·진학 역량 강화 방안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간 혁신' 방안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등이 주체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국민제안→공모제안→분야선택

(교육·문화·체육·관광)→기관선택(광주시교육청)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 채택된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교육감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7월 중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현석용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은 광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며 "잠시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교육청 다자녀 가구 체험학습비 지원

전남도교육청은 "다자녀 가구 중학생의 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학생 1만 5000여명에 대해 1인당 35만원 범위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 교육

비 지원 신청서와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지원항목에도 소급 지원한다. 중학생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전남도가 절반씩 재원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